

‘한기부 대표회장 취임’ 정서영 목사 “기도·말씀으로 부흥 역사를”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열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한기부)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1일 경기도 안양시 마벨리에서 진행됐다. 제56대 대표회장 이승현 목사가 이임했고, 정서영 목사(예장 합동개혁 총회장)가 제57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정서영 목사는 취임사에서 “제57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를 깊이 느낀다”며 “이 직임은 단순한 임명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영적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 목회자들을 부르시는 거룩한 명령”이라고 했다.

그는 “한기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사명을 감당해 왔다”며 “성령 집회, 회개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순결한 믿음, 한국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생명의 역사... 우리는 그 유산 위에 서 있다. 그 유산이 있었기에 한국교회는 세대를 넘어 복음의 흐름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했다.

정 신임 대표회장은 “지금 우리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세속화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까

지 침투하고 있다.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언어는 점점 더 낯설게 들린다”며 “그러나 교회는 위기 속에서 강해졌고, 부흥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시작됐다. 오늘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의 절대 권위를 회복하겠다 △다음 세대 부흥의 발판을 단단히 세우겠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치유의 통로가 되겠다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교회의 본질은 다시 강해질 것이다. 우리가 연합하면 한국교회는 다시 민족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임한 이승현 직전 대표회장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부흥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교회는 사실 부흥사들에 의해 성장해 왔다”며 “언제부턴가 부흥사들을 경시하는 이상한 풍조가 생겼다. 그것이 부흥운동과 성령운동을 퇴보시켰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려면 부흥사의 역할이 필요하



한기부 정서영 신임 대표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등 이·취임 감사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며 “이 일에 있어 정서영 대표회장님과 한기부 회원들의 사역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지혜 목사(상임회장)가 사회를 본 1부 예배에선 이현숙 목사(운영회장)가 기도했고, 김연찬 목사(운영총무)의 성경봉독과 강수아 목사(복음가수)의 특송 후 이용규 목사(증경회장)가 ‘소망의 하나님’(롬 15: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도훈 목사(지도자회 대표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이어진 이취임예식은 이필재 목사(연수원장)의 사회 아래 이승현 직전 대표회장의 이임사, 공로패

증정, 심원보 목사(증경회장)의 격려사, 취임패 증정, 정서영 신임 대표회장의 취임사, 회장단 및 실무임원 소개, 격려사 및 축사, 축하패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격려사를 전한 송일현 목사(이사장)는 “한기부 제56대 회기를 잘 마치게 하시고, 제57대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정서영 신임 대표회장님과 회원분들이 성령에 의지해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잡에서 깨어나는 역사를 이뤄주시길 것을 확신한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는 한기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풍일 목사(증경회장)는 격려사를 통



한기부 신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오른쪽)가 이승현 직전 대표회장에게 취임패를 받은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해 “한기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이 시점 정서영 신임 대표회장님에게 주어진 사명이 크다”며 “한기부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요셉 목사(한교연 초대 대표회장)는 축사에서 “정서영 목사님은 영성이 충만하시고, 한국 교계 연합기관장을 두루 지내셨다. 그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한국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계신다”며 “한기부가 예수님만을 따르고, 더욱 발전하는 데 있어 정 목사님께서 발판을 놓으실 것”이라

고 했다.

이 밖에도 한기부 증경회장들인 엄정목·김 조·윤보환·정여균·한경화·이육화·조래자 목사가 축사했다.

3부 특별기도회에선 이광택 목사(성회 본부장)의 사회로 참석자들은 △정서영 대표회장의 성령 충만과 사역의 기쁨부음을 위해 △한기부의 영적 부흥과 연합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의로운 지도력을 위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부흥사들의 영적 각성과 이단 척결을 위해 △모든 연합집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했다.

이후 송창호 목사(선교회장)의 진행으로 4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박승주 목사(증경회장)가 ‘새 출발을 위한 축복기도’를 드렸고, 정서영 신임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이 축하 케이크를 자르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

정서영 신임 대표회장은 개신대학원대학교(신학석사)와 서울기독대 대학원(Ph.D) 등을 나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계기총)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진영 기자

김두석언약신학연구소, ‘2025 송년 언약세미나 및 기념식’ 개최

칼빈대 유영진 교수, 사마리아 여인 사레 통해

성경의 역사적·신학적 의미 설명

김두석언약신학연구소(소장 김선경 선교사)가 1일 오전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4층 믿음홀에서 ‘2025 송년 언약세미나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언약신학의 마지막 거장으로 불리며 칼빈대학교에서 후학을 길러낸 김두석 교수의 신학적 유산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 김 교수의 제자인 유영진 교수(칼빈대학교)가 강

사로 나서 ‘언약과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성과 영생, 참된 예배라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보아왔던 해석이 성경의 전체 맥락과 구약적 배경, 그리고 1세기 유대사마리아 사회 상황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고만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오랜 해석들을 보면, 그녀를 남편을 여러 번 바꾼 부정한 여성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기 교부였던 오리겐은 ‘다섯 남편’을 모세오경에 비유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오감으로 알레고리화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열왕기하 17장의 이방 종교 혼합주의를 적용하여, 다섯 남



칼빈대 유영진 교수



국제헤세드선교회 이사 이판국 목사

편을 다섯 이방신으로 본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성경 본문과 역사적 사실과 여러 면에서 충돌한다. 열왕기하에서 언급된 이방신은 다섯이 아니라 일곱이며, 순차적이지 아니라 동시에 숭배했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개인적 과거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민족적 알레고리 해석은 설득력을 잃는다”고 했다.

이어 “최근 학계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부당하게 이혼당한 여성’으로 해석하는 온건한 견해도 나왔다. 남편이 다섯 번이나 바뀐 이유를 그녀의 도덕성 탓이 아니라 당시의 가부장적 이혼 관행이나

사회 구조에서 찾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오히려 그녀가 율법 안에서 가능한 한 성실하게 살아보려 했고, 계대결혼이나 고엘 제도와 같은 고대 근동의 복잡한 가족 제도를 배경으로 여러 차례 남편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명기 25장의 계대결혼 규례, 레위기 25장의 가업무를 자고엘) 제도, 루기서와 창세기 38장의 다발 이야기는 이러한 점을 이해하게 한다. 그녀의 과거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그 시대의 가족 제도 속에서 발생한 비극적 역사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생과 ‘참된 예배’의 주제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생수는’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의미한다. 이것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적 생명이며, 예수는 그녀의 과거를 드러내셨지만 정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초청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



김두석언약신학연구소가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2025 송년 언약세미나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최승연 기자

에서 드리는 예배인을 선포했다. 이 점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보다, 예수께서 복음을 드러내신 소중함 신앙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유 교수는 “결론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성은 단순한 도덕적 평가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녀는 복잡한 삶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 공동체의 복음 전달자로 변화되었다. 그녀가 받은 생수는 개인적 구원에서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이끄는 증인의 삶으로 이어졌다. 오늘 우리 또한 과거의 상처나 실패로 자신을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과 진정한 예배자로

서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이다”고 했다.

이어 이판국 목사(국제헤세드선교회 이사)가 축사를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의 사역과 노력들이 더 큰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후원과 기도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한편, 세미나는 이어 김두석 박사 유작, 모든 저서 및 논문집 영어 및 불어 번역본 전자출판 기념회, 가나, 토고 언약신학교 설립 기념회, 김두석 박사 종아책 및 선물 증정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판국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최승연 기자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도로 / 라텍스

 <p>가전/가구 필름</p>	 <p>기능성 페인트</p>	 <p>라텍스 장갑</p>
 <p>도어락/손잡이</p>	 <p>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p>	 <p>생활용 도로/코팅액</p>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